

길상천상(헤이안 시대 국보)

길상천은 풍요, 행운,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불교의 신으로 힌두교의 여신인 락슈미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의보주를 들고 있는데 이는 행복, 행운, 부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집니다. 오른손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듯 내민 모습으로 우아한 자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석가여래상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길상천상과 비사문천상은 모두 1078년에 제작된 것으로, 편백나무 한 그루만으로 조각되었으며 원래의 색채도 잘 남아 있습니다. 세밀한 디테일로 유명한 이 길상천상은 헤이안 시대(794~1185년)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불교 미술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